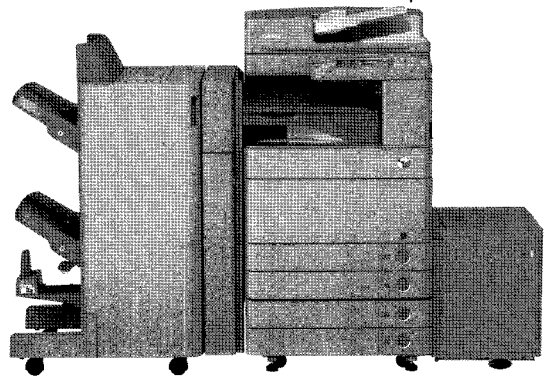


사무기기업계에 불어오는 'Green IT' 바람!

자료제공 : 케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사무기기 시장과 환경이 디지털 복합기의 확산과 컬러화 바람으로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사무기기업계에 '그린(Green)' 바람이 불고 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낯설던 '그린IT' 라는 말을 최근에는 어딜 가든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그만큼 IT업계가 친환경 제품·기술 개발에 절실함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사무기기업계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자연과 공존하지 못하는 기업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미 많은 지자체는 '에너지 절약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전력사용량을 줄인 가정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저탄소 제품 구매자에게 탄소캐쉬백포인트를 제공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탄소캐쉬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케논, 사무기기기업으로 활발한친환경 활동전개

이러한 사회 변화에 기업의 역할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중 가장 활발한 친환경 활동을 펼치고 있는



캐논은, 환경 배려 제품의 개발을 위해 '지구온난화 방지와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화학물질 관리'를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선, 모든 제품분야에서 최소화·경량화를 목표로 적은 자원으로도 기능과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 단계부터 철저히 환경을 배려하고 있다. 또한, 개발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폐기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인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지령이 규정하는 재활용율 65%/ 재자원화율 75%의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고 있다.

◎에너지 절전 신기술과 엄격한 유해 물질 관리

제품별 에너지 절약도 최고 수준을 목표로 다양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술이 복합기와 레이저프린터 등의 정착기에 사용되는 On Demand 정착 기술과 IH (Induction Heating) 정착 기술로, 프린터 워밍 타임을 크게 단축시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다. 캐논은 현재 복합기 대부분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고속복합기, 레이저 프린터, 팩스에도 확대하고 있다.



과 함께 인체해 유해한 독성물질과 방화재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시행되는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을 준수하고 있으며, 업계의 자율규제보다 더욱 엄격한 사내 자체 기준을 만들어, 대체 기술을 개발해 제품에도 도입함으로써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부품 재활용, 토너 카트리지 회수 등 자원 절약에도 적극적

캐논은 “자원 절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일본 미주유럽의 3거점에서 사용한 디지털 복합기를 재생하고 있고, 표면얼룩으로 재활용이 어려웠던 부품도 사용가능하도록 해 무게 대비 최대 91%까지 부품 재활용도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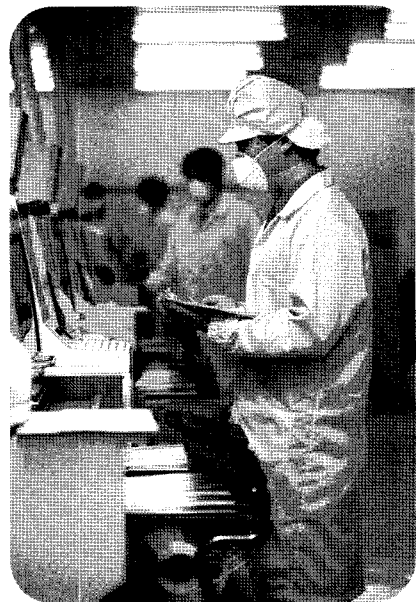
1990년부터 업계 최초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토너 카트리지 회수를 시작하였고 이후 20년간 회수 프로그램 계속해 오고 있다. 1996년부터 잉크 카트리지 회수 및 재생을 시작, 회수된 잉크 카트리지는 재생 잉크 카트리지 및 제품 적재용 팔레트, 등 재활용 재료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충격을 받아도 원래 형태로 되돌아오는 공기의 성질을 이용해, 공기팩으로 제품을 감싸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포장재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펄프물드 완충재와 종이박스로 구성됐던 상품 패키지의 크기를 줄였고, 그 결과 적재효율이 향상되었으며 운송 시의 CO₂ 배출량을 종전 대비 23~49%까지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물류부문에서도 선박·철도를 적극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제품 물류에서는, 물류 사업자와 공동으로 대형의 전용 컨테이너를 개발하는 등 철도 수송의 사용 비율을 높여 CO₂총배출량을 크게 줄였다.

◎제품 환경 정보 시스템 구축, 그룹내에서 공유 효과 높여

캐논은 “자원 절약”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일본 미주유럽의 3거점에서 사용한 디지털 복합기를 재생하고 있고, 표면 얼룩으로 재활용이 어려웠던 부품도 사용가능하도록 해 무게 대비 최대 91%까지 부품 재활용도를 높였다.

1990년부터 업계 최초로, 토너 카트리지 회수를 시작하였고 이후 20년간 회수 프로그램 계속해 오고 있다. 또한, 충격을 받아도 원래 형태로 되돌아오는 공기의 성질을 이용해, 공기팩으로 제품을 감싸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포장재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펄프물드 완충재와 종이박스로 구성됐던 상품 패키지의 크기를 줄였고, 그 결과 적재효율이 향상되었으며 운송 시의



CO₂ 배출량을 종전 대비 23~49%까지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물류부문에서도 선박·철도를 적극 이용하고 있으며, 물류 사업자와 공동으로 전용 컨테이너를 개발하는 등 철도수송의 사용 비율을 높여 CO₂ 총배출량을 크게 줄였다. 끝으로, 캐논은 상품 기획부터 제품의 개발, 품질 보증, 생산, 판매에 이르는 각 단계에 있어서 제품의 환경 특성과 관계되는 환경 기초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집약해, 그룹 내에서 공유하는 「제품 환경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개발·설계부문에서는 「3차원 CAD 시스템」을 도입해 초기제작에 따른 Loss를 줄이고 있으며, 상품 기획, 시제품, 품질 보증의 3단계에서 「제품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해, 환경 대응을 평가하고 있다. 거래처의 환경 대응 상황정보를 「거래처 환경평가 정보 시스템」에 축적해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 기초 정보」라고 제품·부품중의 화학물질 정보를 관리해 그룹 내에서 공유하고 있다.

◎기업의 친환경 활동, 제품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구온난화 문제도 해결

지금까지 캐논의 친환경 활동을 살펴보았듯이, 캐논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지구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요인을 찾아내고, 혁신적 개선과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해 나가고 있다.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을 가장 먼저 고려하면서도 제품개발의 효율성 증대와 에너지의 절약, 더 나아가 지구온난화 문제가 해결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품질과 가격은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는 중요한 판단요건이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에 더해 친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 사무기기업계에서도 이미 발 빠르게 친환경화 수순을 밟고 있다. 친환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환경을 생각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고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기업의 친환경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때이다.